

치 사

생명의 기운이 형형색색으로 봄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풀 한 포기
가 갖는 생명의 존귀함도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이에 답하여 겨우
내 훈훈함을 잃지 않았던 여러분의 공덕들이 포근한 대지 위에서 희망
의 시간을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이가 행복해야 나 또한 행복할 수 있다는 이념으로 설립한 고운
청소년재단이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함께 찾기 위해, 오늘 ‘안동청소년문
화센터’ 개관이라는 뜻깊은 불사를 성취하고 있습니다. 선업을 짓는 공
덕이기에 종단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치하하며 무량한 발전을 축원합니
다.

현시대는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문화의 시대이며 다가오는
미래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시대에 인성의 완성과 건
전한 문화활동이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 인성을
찾아가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시켜 주는 일이야말로 미래의 초석을 다
져가는 본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정신문화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을 더하
는 것은 진정한 창조이자 후손에 대한 배려이고 책무입니다. 기성의 세
대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우리가 부족했던 것과 아쉬웠던 것에 대해
성찰하고 청소년에게 훌륭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을 미래의 주인공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일은 기
성세대의 몫이요, 종교인의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개원하는 ‘안동청소년문화센터’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지역
의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청정한 도량이자 희망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
니다.

지난 몇 년간 종단을 운영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은 바로 사찰과 스님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환원과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었습니다. 강력히 추진했던 종단적 사업들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어가는 것은 종단적으로 매우 유익한 일이며, 더우기 열악한 환경인 고운사가 두 가지 어려운 일을 하나의 결실로 이루어 낸 것은 종단의 모범은 물론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매년 운영지원금 없이 사부대중과 불자님들의 원력이라는 독자적이면서도 고귀한 역량으로 청소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고운청소년재단 이사장 호성스님과 소임자, 그리고 제16교구 고운사 말사 주지스님과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청소년문화를 연구하고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충실히 제공해 나간다면 이 지역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의 행복과 복지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종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청소년 문화사업을 통해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건립과 개원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상북도와 안동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개원식을 계기로 청소년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청정하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도량을 이루는 무량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불기2557년 4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